

강진군, 딸기 우량묘 생산 메카 '도약'

1시군 1특화작목 육성사업 · 전문가 교육 효과

강진군이 딸기 우량묘 생산 기술의 새로운 거점으로 주목받고 있다. 지난달 19일 경남의 딸기 재배 농업인들이 벤치마킹을 위해 강진을 찾은 것을 비롯해 25일에는 군농업기술센터에서 관내 딸기 재배 농가 40명을 대상으로 '병 없이 다수확하는 딸기 육묘기술' 교육이 실시되었다. 강의자로 나선 최영준 원예연구팀장은 우량묘 확보가 딸기 다수확의 비결이고 건강한 모주 관리가 성공적 육묘의 지름길이라면서 고온기 철저한 병해충 관리를 당부하였다. 한편 군은 전남농업기술원에서 주관하고 있는 1시군 1특화작목 육성사업 공모에 선정돼 2018부터 2020년까지 사업비 총 10억을 확보하고 올해로

2년차 딸기육묘에 지원시책을 펼치고 있다. 사업 첫 해 25개 농가에 딸기 우량묘 생산을 위한 전문 육묘장을 육성하고 자가육묘 베드 및 보급형 ICT 시설을 설치하였다. 이어 올해에는 16개 농가에 딸기 육묘 시설 및 딸기 신품종을 보급하여 명품 딸기 생산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딸기는 모종농사가 반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여름 육묘가 생산량을 좌우한다. 군은 농림수산기술평가원의 연구를 산을 확보하여 쉽게 육묘하는 기술을 연구·보급하는 등 측면지원에도 노력 중이다. 육묘 기술교육에 참여한 박성철씨



는 "병 없이 다수확하는 딸기 육묘 기술 교육은 여름철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점검할 수 있는 유용한 교육이었다"며 "배운 내용을 적용하여 강진 딸기가 최고 명품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남균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시기

'1004섬 신안 상품권' 판매 개시

신안군은 '1004섬 신안 상품권'을 발행해 1일부터 본격적으로 판매를 개시했다. '1004섬 신안 상품권'은 지역내 소비촉진과 자금의 역외유출 방지로 지역경제 활성화, 전통시장 상권 보호 육성, 지역공동체 유대강화를 위해 발행하는 지역 상품권이다. 소비자는 상품권을 할인 받아 구

매하고, 가맹점은 카드 수수료 절감과 매출 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상공인의 경영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상품권의 종류는 3천원권, 1만원권 2종으로, 판매 농협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개인이 현금 구매 시 4% 할인된 금액으로 월간 최대 50만원, 연간 500만원까지 구입이 가능하다.

진도군, 농수산물 판로확보 품평회

진도군이 지난달 26일부터 2일간 진도명품관 홍보관에서 진도아리랑 농수산물 판로확보를 위해 품평회를 가졌다. 이날 서울시 소상공인정책담당관과 전라남도, 중소유통물류센터 관계자, 친환경 농수산물 생산자 등이 참여, 12개 업체 150여가지의 농수특산품을 진열해 직접 맛과 향을 느끼고, 포장재 등을 평가했다. 특히 중소유통물류센터 과창선 센터장은 생산자인 농업회사법인 ㈜진

도군친환경, 바닷물산영어조합법인, 울금식품가공사업단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등 공급자의 생산라인도 꼼꼼히 확인했다. 진도군 경제마케팅과 마케팅담당 관계자는 "청정 진도에서 생산되는 고품질의 농수특산품이 전국 각지에서 판매될 수 있도록 공격적인 마케팅 전략을 통해 지속적인 판로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무안군, 폭염 속 무더위 쉼터 일제 점검 나서

건강한 여름나기 총력

무안군이 본격적인 여름철이 시작됨에 따라 주민들의 건강한 여름나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은 지난달 31일 관내 무더위 쉼터를 일제히 방문해 에어컨과 선풍기 등 냉방시설의 상태와 가동여부를 점검하고 이용 시 불편사항 등에 대해 의견을 청취했다.

특히 이번 점검은 소외계층과 공직자가 일대일 결연을 맺는 '으뜸서비스'와 연계해 무더위 쉼터 점검 중 발견된 긴급 및 조치사항을 시스템에 등록함으로써 필요시 관련부서에 직접 조치 요구를 가능하게 해 소통행정의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밖에도 마을 노인회장 및 이장을 직접 찾아배 안부를 전하는 한편 마을 방송을 통해 폭염대비 행동요령에 대해서도 홍보하며 어르신들의 건강을 살렸다. 김산 무안군수는 "폭염대비 행동요령에 따라 무더운 오후 시간대에는 야외활동을 자제해 달라"면서 "앞으로도 여름철 어르신들의 온열질환 사고 예방과 무더위 쉼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무안군은 여름철 폭염 일수·빈도·강도 증가에 따른 인명·재산 피해 최소화를 위해 폭염대비 재대본 및 T/F팀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무안=이기성 기자

목포시, 조위 상승에 따른 해수침수 철저한 대비 당부

목포시는 1일부터 5일까지(오전 2시 ~ 6시) 바닷물 수위가 5m이상(조석표상 7/5 최고 5.11m)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피해를 입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다. 특히, 이번 조위 상승은 지구와 달이 가까워져 달이 커보이는 현상인 '슈퍼문'의 영향으로 10년만에 해수면을 가장 많이 높일 것으로 보여 침수사고 대비는 물론 물놀이 안전사

고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시는 침수 경계 지역인 해안저지대에는 차량 주·정차로 인한 침수피해에 예상되므로 저지대 차량주차 금지를 당부했다. 북포에서 침수 우려가 큰 지역은 문화예술회관 앞 도로, 해안로 수협 주변(태평양횃집 앞), 북항 노을공원 주변도로 등이 다. 북포시는 비상근무반을 편성하고

조위 상승에 따른 침수를 예방하기 위해 배수펌프장, 배수문, 하수문에 대해 사전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해안저지대에는 현지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목포시는 바닷물 수위가 조석표상 조고 4.00m이상일 경우 해수 위험일로 지정하여 시민들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침수피해 예방에 적극 대처하고 있다.

강진=김영일 기자

진도=조성용 기자



영암군, 영등포구 어린이 문화체험단 초청

영암군은 자매결연 도시인 서울 영등포구와 여름방학을 맞이하여 관내 초등학교 4-6학년생을 대상으로 어린이 문화체험단을 구성하여 상호 방문교류 행사를 실시했다. 영등포구 어린이 문화체험단 15명은 7월 31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영암군을 방문하여 영암군 어린이 문화체험단 15명과 함께 북재문화와 도기 빚기 체험, 왕인박사유적지, 죽간랜드, F1경주장 견학 등을 통해 영암의 다양한 문화관광 시설을 경험해보는 것은 물론 상호 어린이간의 소중한 우정을 나눌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영암군은 영등포구와 1995년 10월 17일 자매결연을 맺고 민간교류의 일환으로 매년 어린이 문화체험단 상호 교류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 왕인문화축제, 여의도 봄꽃축제, 군민의날, 구민의날 등 각종 행사에 상호 방문하는 등 도시와 농촌의 지속적인 우호증진과 상호 긴밀한 상생협력을 폭 넓게

특히 올해는 도시에서 접하기 어려운 체험유주의 문화관광행사를 실시하여 어린이들의 큰 호응을 얻었으며,

영암=조대호 기자

완도군, 8월 해양치유식품 '해변 포도' 선정

완도군이 8월의 해양치유식품으로 완도에서 생산되는 '해변 포도'를 선정했다. 포도는 쌍떡잎 식물 갈매나무목 포도과 낙엽성 덩굴식물로 우리나라는 고려시대에 중국에서 들어온 것으로 추측되며, 조선왕조실록 등에도 포도에 관한 기록이 실려 있다. 우리나라는 1906년 서울특별시에 원예모범장을 설립하면서 본격적으로 재배를 시작하였으며, 완도 해변 포도는 1994년부터 재배되다가 2002년 작목반이 구성되면서 '해변 포도'로 불리기 시작했다. 완도 군외면에서 생산되는 포도는 청정바다 해안가에서 재배되어 '해변 포도'라고 하며, 일반적인 포도에 비해 향과 당도가 높고 미네랄이 풍부하다. 특히 당도는 타 지역보다 1~2brix

정도 높다. 프랑스의 유명한 포도주 단지가 지중해 연안에 있던 완도의 온난한 해양성 기후와 깨끗한 해풍, 해양 에어로졸, 풍부한 일조 시간 등 자연조건을 골고루 갖춘 해안가에서 재배되어 맛과 효능이 월등하다. 완도의 포도 재배 농가는 시설하우스 8농가(1ha)에서 10톤, 노지 재배는 12농가(6ha) 71톤이 생산되고 있으며, 유용미생물을 활용한 완도 자연 그대로 친환경 방식으로 재배되고 있다. 하우스 포도는 지난 7월 18일부터 판매를 시작하였으며, 노지 포도는 8월 하순부터 본격적으로 수확된다. 신안도를 불리기 위해 당일 수확한 포도만 판매되며, 완도군 군외면 해안도로를 이용하면 싱싱하고 달콤한 포도를 현장에서 직접 구매할 수 있다. 포도는 비타민과 유기산 등 영양소

가 풍부해 '신이 내린 과일'이라고 불리며 동서양 구분 없이 오랫동안 사랑받은 과일 중 하나이다. 포도의 당 함량은 14~20% 정도이고 대부분 포도당과 과당으로 되어 있으며, 체내에 곧바로 흡수되어 피로 회복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 또한 혈중 산화질소 농도를 증가시켜 혈전이 생기는 것을 막아주어 심혈관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되며, 이노시올이 탁월해 나트륨을 몸 밖으로 배출시켜주고, 칼슘 흡수를 돕는 비타민 C와 D가 풍부하여 골다공증 예방에도 효과적이다. 포도는 알이 굵고 고르며 과분(하얀 가루)이 묻어 있는 것이 좋다. 포도의 과분은 매우 미세한 돌기 구조로 되어 있어 스스로 깨끗하게 정화하는 효과가 있고, 고르게 덮여 광택이 없는 것이 특징으로 비 가루이나 봉지 재배에 의한 과분은 친환경 지표라고 할 수 있다.

완도=김광수 기자

보이는 것이 전부 아닙니다!

옳은 정보를 구분하는 현명한 시민, 미디어 리터러시에서 시작합니다.

